

남녀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최예린** · 이소연***

초 록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개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공동반추 척도(Co-rumination Scale Questionnaire: CRQ)’,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s: CES-D)’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절효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이성친구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청소년의 공동반추는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이성친구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동성친구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동성친구 스트레스 및 교사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낮은 수준의 동성친구 스트레스 또는 높은 수준의 교사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수준에 따라 상반된 경로를 보인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바,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공동반추를 함께 고려하는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주제어: 청소년, 공동반추,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증상

* 본 연구는 최예린(2019)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제 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부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소장, 교신저자, leesy@sm.ac.kr

I. 서 론

우울장애는 청소년기에 흔하게 보고되는 내재화 장애 중 하나이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 따르면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는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거나, 현저한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요우울장애의 평균 발병연령은 약 15세로 청소년 중기에서 후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유병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winsohn & Essau, 2002). 국내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62,276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모두가 중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7).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다른 어떤 시기보다 급격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다양한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정과 함께 우울증상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박재연, 2010). 특히 이 시기에 경험하는 우울증상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및 자기성장을 방해하여 발달과정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공은화, 김원영, 2017), 자살과 같은 위험행동과 쉽게 연결될 수 있고(박재연, 2010), 성인기 이후 높은 수준의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겪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Shankman et al., 2009)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에 주목하는 것은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우울증상의 병인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크게 생물학적, 정서적, 인지적, 대인관계 취약성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대인관계 취약성 모델은 다양한 타인들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발달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맞물려,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되었다(Joiner & Timmons, 2009). 이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기술의 손상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같은 관계의 문제는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증상은 청소년의 가족, 친구, 이성관계와 같이 다양한 관계의 맥락에서 발현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우울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규명되었다(공은화, 김원영, 2017). 이처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양상의 대인관계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울증상을 단지 개인의 기질적, 인지적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이시연,

2011),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고려하여 우울증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변인 중 하나로 공동반추 (Co-rumination)가 제시되었다. 공동반추는 Rose(2002)에 의하여 제안된 구성개념으로 두 사람이 양자 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문제를 지나치게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문제 논의에 대한 상호 격려,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색, 부정적인 느낌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한다(Rose, 2002). 공동반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 사이의 신뢰감 및 정서적 친밀감, 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강력한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주의가 다른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추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실제로도 공동반추와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장애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Spendelov, Siminds & Avery, 2017), 공동반추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se, Carlson & Waller, 2007). 또한 공동반추가 청소년들 간의 우울증상의 전염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Schwartz-Mette & Rose, 2012) 우울증상이 관계의 맥락 안에서 발생 및 악화된다는 대인관계 취약성 모델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공동반추가 오히려 우울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도 있었다. 먼저 공동반추를 반추와 비교하였을 때 반추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예측한 반면 공동반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우울과 불안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은, 2010),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공동반추는 우울증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연, 하은혜, 2015). 또한 공동반추는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Hankin, Stone & Wright, 2010), 반추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공동반추는 우울증상의 증가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반추가 반추를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상의 증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가 제기되었다(Stone & Gibb, 2015). 이러한 결과는 공동반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노출이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나, 이러한 의논을 통해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우울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공동반추는 친구 사이의 지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정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

으나 동시에 개인의 부정적 정서에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문제에 대한 부적응적인 추측 및 추론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Rose, 2002; Spendelow et al., 2017). 이와 같이 비일관적인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조절하는 제 3의 변인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관한 강력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이 제시되고 있다(Thapar, Collishaw, Pine & Thapar, 2012). 청소년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아동기에 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경험하게 되며,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에 노출되는 경험은 청소년기 우울증 발생의 증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 Garber, 2011; Flynn & Rudolph, 2011). 또한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avila, Hammen, Burge, Paley & Daley, 1995), 비(非)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비하여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적 상황과 같은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상의 발생에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rshek-Schallhorn et al., 2015). 이처럼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타인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청소년기에 발현되는 우울증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의 중요성이 시사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개인 내적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한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의 전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개인 내적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한 집단의 경우 우울의 전염에 대한 공동반추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Mette & Smith, 2016).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를 통한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개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이 유추된다.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역치가 비교적 낮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Anyan, Bizumic & Hjemdal, 2018). 이러한 경우 공동반추를 통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을 재경험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Schwartz-Mette & Smith, 2016),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을 촉발시키는 부정적인 경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보고한 청소년의 경우, 가까운 친구와의 공동반추가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노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상의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이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의 결과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을 경우 양자 간의 공동반추가 불쾌감 또는 우울증상으로 귀결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arr & Davila, 2009). 오히려 이러한 경우 공동반추는 친구 간의 신뢰와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양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우울증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즉,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공동반추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검증하고 있으며, 우울증상에 대한 원인으로 공동반추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비일관성이 청소년이 의미 있게 지각하는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더 많이 공동반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높은 우정의 질과 연관된 것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가 높은 우정의 질과 동시에 더 많은 내재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이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높은 친밀감과 우정을 나타낸 동시에 내재화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가깝고 친밀한 친구 관계를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양상은 자신들의 문제를 친구와 공유하고, 상대가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우울증상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Chow, Homa & Amersdorfer, 2017). 아울러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들의 사회적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와 더 많이 공동반추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복잡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그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Rose, 2002). 여자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더 높은 우울증상을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다(Shih, Eberhart, Hammen & Brennan, 2006).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여성의 경우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이 우울증상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Benazon & Coyne, 2000),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 중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의 경험 빈도가 우울증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숙빈, 2006). 이에 더하여, 이성친구와의 접촉, 만남, 스킨십의 수준이 높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성관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동성친구 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의 증가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rr & Davila, 2009). 이를 통해 볼 때, 여자 청소년이 가까운 친구와 이성교제와 관련한 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성관계 경험이 스트레스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우울증상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Davila, Steinberg, Kachadourian, Cobb & Fincham, 2004). 반대로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낮은 관여 수준을 보고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성관계 경험 수준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의 경우, 공동반추가 초기 우울증상 및 6개월 후의 우울증상 모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연, 하은혜, 2015).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에서 나타나게 되는 자기노출이 긍정적인 친구관계로부터 비롯된 친밀감과 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이희연, 하은혜, 2015), 청소년의 우울증상 발생을 보호하는 사회적 지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 경로에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반추, 우울증상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이성친구 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히고,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2곳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녀 청소년 4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457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 및 동의서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43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전체 434명의 학생 중 남자 213명(49.1%), 여자 221명(50.9%)이었으며, 학년 구성은 1학년 233명(53.7%), 2학년 201명(46.3%)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도구

1) 공동반추 척도 (CRQ)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반추를 측정하기 위하여 Rose(2002)에 의해 개발되고 오온(2010)이 번안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공동반추 척도(Co-rumination Scale Questionnaire: CR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내용으로는 친밀한 동성친구와 (1) 문제를 논의하는 빈도, (2)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문제 논의하기, (3) 친구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나의 격려, (4) 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친구의 격려, (5)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논

의하기, (6) 문제의 원인에 대한 사색, (7) 문제의 결과에 대한 사색, (8) 이해되지 않는 문제의 일부에 대한 사색, (9)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하는 정도를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반추 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로 산출되었다.

2)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교헌과 전경구(1993)가 개발한 청소년용 생활스트레스 척도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 영역에 해당하는 38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으로 가족 관계(9문항), 동성친구 관계(9문항), 교사와의 관계(10문항), 이성친구 관계(10문항)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들이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성친구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이성친구와의 대인관계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본 척도는 지난 1년 동안 응답자가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거의 그렇지 않다’는 2점, ‘다소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별 총점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영역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가족 관계 .87, 동성친구 관계 .92, 교사와의 관계 .94, 이성친구 관계 .87로 나타났다.

3) 우울척도 (CES-D)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안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인들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정신보건연구원에서 제작한 도구로 총 20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을 경험한 빈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각 문항은 ‘극히 드물었다(0점)’에서 ‘대부분 그랬다(3점)’까지

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및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총점 및 우울증상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및 성별에 따른 모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가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조건하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추가적으로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이성친구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2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N=434)

변인	전체(N=434)	남(n=213)	여(n=221)	t
	M(SD)	M(SD)	M(SD)	
공동반추	90.92 (21.28)	88.35 (22.13)	93.35 (20.18)	-2.44*
가족 스트레스	20.40 (6.54)	18.56 (6.13)	22.18 (6.43)	-5.98***
동성친구 스트레스	21.88 (7.70)	19.65 (7.12)	24.04 (7.63)	-6.18***
교사 스트레스	24.07 (8.99)	22.70 (8.73)	25.30 (9.08)	-2.92**
이성친구 스트레스	21.52 (7.23)	20.86 (7.33)	22.35 (7.07)	-1.55
우울증상	15.66 (12.00)	12.98 (11.43)	18.21 (12.00)	-4.60***

* $p < .05$, ** $p < .01$, *** $p < .001$

2. 남녀 청소년의 공동반추,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증상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독립변인인 공동반추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r=.06$, $p>.05$), 조절변인인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의 가족 스트레스($r=.29$ $p<.001$), 동성친구 스트레스($r=.35$, $p<.001$), 교사 스트레스($r=.27$, $p<.001$), 이성친구 스트레스($r=.22$,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독립변인인 공동반추는 조절변인인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동성친구 스트레스($r=.10$, $p<.05$), 교사 스트레스($r=.10$, $p<.05$), 이성친구 스트레스($r=.17$,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가 이성친구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23$, $p<.05$). 또한 남자 청소년의 가족 스트레스($r=.36$, $p<.001$), 동성친구 스트레스($r=.32$, $p<.001$), 교사 스트레스($r=.32$, $p<.001$), 이성친구 스트레스($r=.38$, $p<.001$)와 우울증상 간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확인되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 스트레스($r=.15$, $p<.05$), 동성친구 스트레스($r=.29$, $p<.001$), 교사 스트레스($r=.19$, $p<.01$)가 우울증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N=434)

변인	1	2-1	2-2	2-3	2-4	3
1. 공동반추	-	-.01	.12	.03	.06	-.02
2-1. 가족 스트레스	-.05	-	.66***	.61***	.50***	.15*
2-2. 동성친구 스트레스	.10	.65***	-	.75***	.52***	.29***
2-3. 교사 스트레스	.14	.60***	.72***	-	.68***	.19**
2-4. 이성친구 스트레스	.23*	.63***	.57***	.65***	-	-.01
3. 우울증상	.08	.36***	.32***	.32***	.38***	-

* $p < .05$, ** $p < .01$, *** $p < .001$

주: 좌측 하단: 남자 청소년(n=213)의 상관계수, 우측 상단: 여자 청소년(n=221)의 상관계수

3.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변인들에 대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모두 3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공동반추 총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총점(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공동반추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총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성친구 스트레스의 경우, 결과의 타당도를 고려하여 지난 1년 동안 이성친구와의 대인관계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며, 응답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이성친구와의 대인관계 경험을 보고한 22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증상에 대한 공동반추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회귀식에서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경우 독립변수 또는 조절변수의 조건부효과를 의미하는 회귀계수가 유의하

지 않아도 조절분석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형권, 2016; Hayes, 2013)는 연구에 따라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는 모델은 한 변수의 효과가 다른 변수의 효과와 함께 변동함을 가정하기에(이유재, 1994), 유의하지 않은 조건부효과를 제외하는 것은 조절변수에 의해 조절되는 독립변수의 효과의 추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Hayes, 2013). 이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동성친구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N=434)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공동반추 (A)	.02	.03
가족 스트레스 (B)	.14*	.13*
동성친구 스트레스 (C)	.26**	.28***
교사 스트레스 (D)	-.02	-.03
A × B		.06
A × C		-.21**
A × D		.11
R^2	.12	.14
ΔR^2		.02
F	14.44***	9.42***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2단계에서 공동반추와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은

14%로 증가하였으며($F=9.42$, $p<.001$),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beta=.21$, $p<.01$).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을 통해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 1 의 값을 각 변인의 상, 하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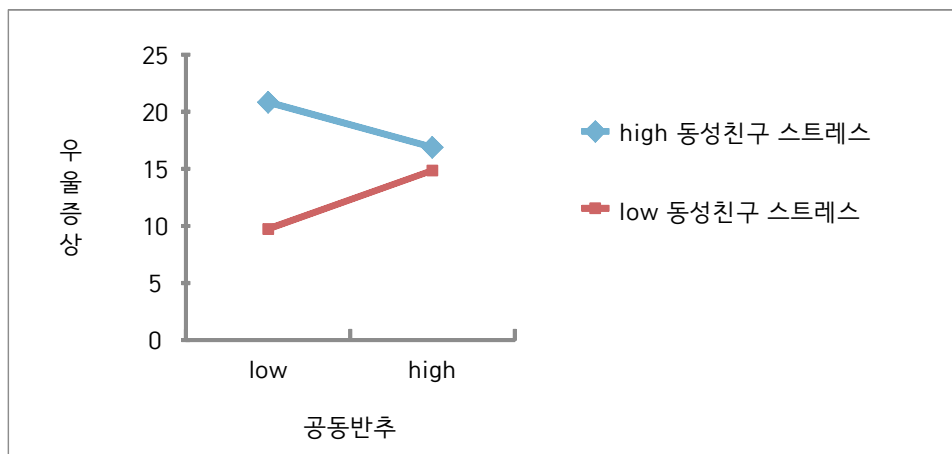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양상은 공동반추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경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으로부터 ± 1 표준편차 값에서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단순 기울기는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1SD) -0.09 ($t=-2.01$, $p<.05$)로 나타났고,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1SD) 0.12 ($t=2.52$, $p<.01$)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성친구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성친구 스트레스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오히려 우울증상을 낮추는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남녀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동성친구 스트레스 및 교사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N=213)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공동반추 (A)	.09	.10
가족 스트레스 (B)	.31***	.30***
동성친구 스트레스 (C)	.11	.12
교사 스트레스 (D)	.03	.03
A × B		.07
A × C		-.23*
A × D		.21*
R^2	.17	.21
ΔR^2		.03
F	10.33***	7.13***

* $p < .05$, ** $p < .01$, *** $p < .001$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레스, 공동반추와 교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2단계에서 공동반추와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은 21%로 증가하였으며($F=7.13$, $p<.001$),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beta=-.23$, $p<.05$), 공동반추와 교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beta=.23$, $p<.05$)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동성친구 스트레스 및 교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을 통해 조절변인인 동성친구 스트레스와 교사 스트레스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 1 의 값을 각 변인의 상, 하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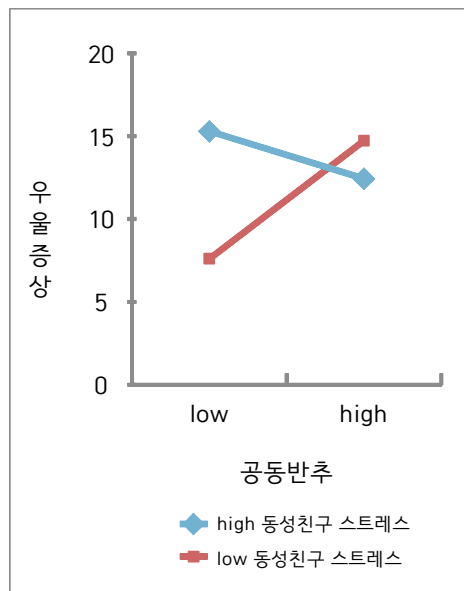


그림 2.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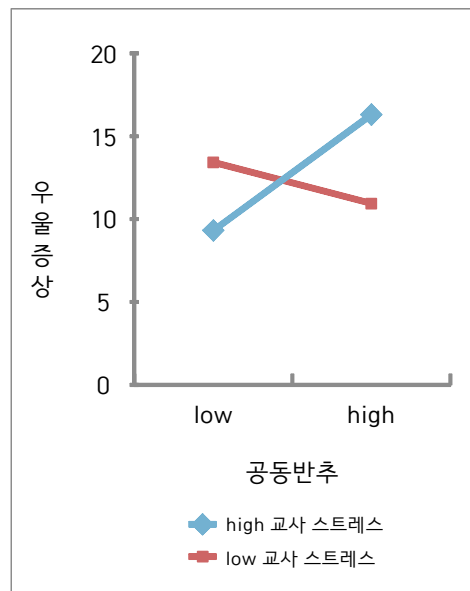


그림 3.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교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먼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으로부터 ± 1 표준편차 값에서 단순 기율기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단순 기율기는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1SD) $-0.06(t=-1.03, p>.05)$,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1SD) $0.16(t=2.75, p<.01)$ 로 나타났으며,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의 단순 기율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 지각한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스트레스가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으로부터 ± 1 표준편차 값에서 단순 기율기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단순 기율기는 교사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1SD) $0.16(t=2.37, p<.05)$, 교사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1SD) 기율기는 $-0.06(t=-1.02, p>.05)$ 로 나타났으며, 교사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의 단순 기율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성차에 따른 조절효과의 양상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동반추, 우울증상,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성친구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높은 수준의 공동반추(Rose, 2002; Rose et al., 2007), 우울증상(Spendelov et al., 2017), 대인관계 스트레스(Nolen-Hoeksema & Hilt, 2009)를 보고하는 것으로 제시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인관계와 관련한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유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연구(Landoll, Schwartz-mette, Rose & Prinstein, 2011)를 통해 볼 때,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우울증상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여, 공동반추를 통해 가까운 친구와 이러한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를 보다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이성친구 스트레스는 모두 우울증상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이향중, 2017)를 지지한다. 또한 청소년의 공동반추는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이성친구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동반추가 청소년의 동성친구, 이성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반추가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Hankin et al., 2010). 반면 청소년의 공동반추는 우울증상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Rose, 2002; Schwartz-Mette & Rose, 2012) 및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이희연, 하은혜, 2015)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Frisom, Bastin, Bijttebier & Eggermont, 2018)와 일치한다. 이는 공동반추가 우울증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보다 제 3의 요인의 투입여부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Chow et al., 2017; Stone & Gibb, 2015)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남녀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공동반추와 이성친구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가 이성친구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 공동반추를 더 많이 할수록 높은 수준의 이성친구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성친구와 동성친구 중 동성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이성친구와 동성친구 중 한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정자, 박은령, 2001). 또한 남학생의 공동반추가 친구관계의 갈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임혜림, 2018), 가까운 친구가 이성과의 데이팅 관계에 몰두할 때, 자신이 점차 잊혀질 것이라 상상하면서 분노와 질투 정서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배재현, 최보가, 2006). 이를 통해 볼 때, 남자 청소년이 가까운 동성친구와 반복적으로 이성관계와 연관된 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이로 인한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양상이 이성친구 관계와 관련한 스트레스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동성친구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조절효과 유의성의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회귀식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제시하고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이 낮은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보고한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보고한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국외 연구결과(Schwartz-Mette & Smith, 2016)와 대조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공동반추가 오히려 우울증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함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권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 독립에 대한 문화적 목표를 바탕으로 개인의 독특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및 협동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였을 때, 동양 문화권에서의 공동반추는 보다 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며 오히려 우울증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오은, 2010). 또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친구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

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윤주, 이은혜, Mendelson, 2002).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승현, 심미영, 2014), 또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된 결과(최정은, 김민정, 2015)에 기초하였을 때, 공동반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노출이 사회적 지지로 인식되면서 우울증상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즉,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높게 지각되는 경우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깝게 느끼는 친구와 공동반추를 통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 자기노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상호관계를 통한 자기노출의 경우 정서적 친밀감과 동반자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Calmes & Roberts, 2008),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자기노출이 우울 및 신체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덕웅, 박준호, 김교현, 2004). 특히 친구로부터 얻어지는 지지는 우울한 청소년의 자해행동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Latina, Giannotta & Rabaglietti, 2015),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친구의 지지가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규련, 2010). 공동반추를 하는 두 청소년이 유사한 친구관계의 맥락을 공유한다(Rose et al., 2007)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동성친구 관계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처방법으로 인식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성친구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뿐만이 아니라 ‘반 아이들과의 관계’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의 또래집단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공동반추의 경우 다수의 집단이 아닌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양자관계에서 경험하는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과의 대화는 청소년 자신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인식되어(왕만, 이용남, 2015),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계기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공동반추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타인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부가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우울증상과 같은 내재화 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Hankin et al., 2010). 특히 공동반추가 문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한다(Schwartz-Mette & Rose, 2012)는 점에서, 낮은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보고한 집단의 경우 공동반추를 통해 우울증상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와 정서문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문제를 같이 나누게 되면 상대방의 정서적 어려움을 대리적으로 느끼게 되어 내재화 증상이 증가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Smith, 2015). 국내 청소년의 경우에도, 가까운 친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정적인 타인의 경험에 대해 불쾌감과 불안 및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한익, 이미화, 2010). 이를 통해 볼 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문제에 초점을 맞춘 친구와의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비교적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이 낮은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보고한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공동반추가 친구 사이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Rose et al., 2007)와 상반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낮은 수준의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기능함을 나타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친구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 안정감이나 인지적 조력과 같은 우정의 순기능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은영, 1998), 교우관계의 부정적 영향이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a, Sheck, Cheung & Lee, 1996). 또한 남학생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울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식으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우, 남학생의 우울증상의 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경, 최연실, 2014).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협과 힘을 사용하

는 적대적·신체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언어적 전략을 통해 갈등을 완충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Murphy & Eisenberg, 1996)와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정서적 공감능력이 저조하고, 문제에 대한 인지적 접근과 체계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박은혜, 김혜리, 조경자, 구재선, 2009), 이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동반추의 부정적 특성과 연결될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의 경우 타인과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의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경험한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청소년의 지적 성숙 및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자’로 인식되며,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지지원으로 기대되는 존재이다(Tigheelaar & Korthagen, 2004).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 교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고등학생의 우울과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택, 김진호, 정의석, 2011). 또한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맺은 청소년은 낮은 불안수준과 높은 학업 수행능력을 보이며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교사와 우호적 관계형성에 실패하고 교사로부터 언어 및 신체적 처벌과 같은 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인 행위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정아, 김은경, 윤혜미, 2018). 이를 통해 볼 때, 남자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거나 체벌을 경험한 경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또래관계 문제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이경아, 정현희, 1999), 청소년과 교사의 친밀한 관계는 자신이 속한 학교 환경을 지지적으로 인식하도록 돕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타인에게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ch & Ladd, 199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남자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에

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가까운 친구와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적절한 수준으로 표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배재현, 최보가, 2006), 이러한 경우 심리적 어려움이 상쇄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유추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공동반추는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을 모두 내포한 복합적인 구인으로, 양자 간의 역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사건에 따라 공동반추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반추의 구성개념이 가지고 있는 양방향적 특성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바,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동반추가 사회적 지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동성친구 스트레스 수준 및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입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남자 청소년의 경우, 동성친구 스트레스에 더하여 교사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경로가 나타나 청소년기 우울증상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남자 청소년의 동성친구 및 교사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여, 공동반추의 부정적 속성을 감소시키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Rose, 2002; Rose et al., 2007)와 달리 공동반추와 우울증상 간의 유의미한 직접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6개월 전과 후로 구분하여 검증하였을 때 공동반추가 청소년들의 양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상의 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Schwartz-Mett & Rose, 2012),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가 우울증상을 촉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활용하여 공동반추와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이성관계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할 때, 지난 1년 동안 이성과의 대인관계 경험이 없는 참여자를 응답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이성관계 스트레스를 보고한 응답자의 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다른 하위영역인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를 보고한 응답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표본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이성관계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규명할 만큼의 통계적 검증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1~2학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청소년 집단 또는 임상 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과 학교 및 집단을 보다 다양하게 표집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윤주, 이은혜, Mendelson, M. J. (2002).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관계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1), 1-17.
- 고정자, 박은령 (2001).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연구소논문집**, 18(2), 101-116.
- 공은화, 김원영 (2017). 청소년 우울 영향 변인들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61-75. doi:10.21097/ksw.2017.08.12.3.61
- 김교헌, 전경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척도의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97-217.
- 박재연 (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 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345-375. doi:10.16999/kasws.2010.41.1.345
- 박은혜, 김혜리, 조정자, 구재선 (2009). 성차에 대한 Baron-Cohen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이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2), 269-286. doi:10.18205/kpa.2009.14.2.004
- 배재현, 최보가 (2006). 남자 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및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6), 87-102.
- 오정아, 김은경, 윤혜미 (2018). 부모갈등과 교사행동이 청소년의 심리적응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1, 221-246.
- 오은 (2010). **청소년과 성인의 성별에 따른 공동반추와 우정의 질 간의 차별적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왕만, 이용남 (2015).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교육연구**, 38, 163-188.
- 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13-226.
- 이시연 (2011). 빈곤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9(2), 91-103. doi:10.35151/kyci.2011.19.2.005
- 이유재 (1994).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23(4), 183-210.
- 이은영 (1998).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25-138.
- 이향중 (201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낙관성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2), 751-773. doi:10.22251/jlcci.2017.17.12.751
- 이형권 (2016). 조절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 및 매개된 조절분석의 오해와 진실. **관광연구**, 31(3), 213-248.
- 이희연, 하은혜 (2015). 청소년 우울증상의 지속에 대한 인지취약성의 영향과 성차: 6개월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2), 157-179. doi:10.18205/kpa.2015.20.2.003
- 임성택, 김진호, 정의석 (2011).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완벽성향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3), 243-260.
- 임숙빈 (2006).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이해와 중재 전략. **스트레스연구**, 14(2), 107-114.
- 임혜림 (2018).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또래관계에서의 지지와 갈등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0(1), 73-96.
- 정승현, 심미영 (2014). 청소년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275-284. doi:10.5392/jkca.2014.14.09.275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성경, 최연실 (2014). 남·여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1), 53-74. doi:10.21479/kaft.2014.22.1.53
- 조한익, 이미화 (2010).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1), 139-158.
- 질병관리본부 (2017). **제 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웹 사이트 <http://yhs.cdc.go.kr>에서 2018년 2월 인출.

- 최규련 (2010). 가족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8(6), 95-111.
- 최정은, 김민정 (2015). 가족건강성과 또래지지가 중학생의 우울과 분노에 미치는 영향. **발달지원연구**, 4(2), 113-129.
- 한덕웅, 박준호, 김교현 (2004).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자기노출, 반복생각 및 정서경험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99-13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yan, F., Bizumic, B., & Hjemdal, O. (2018). Specificity in mediated pathways by anxiety symptoms linking adolescent stress profiles to depressive symptoms: Results of a moderated mediation approach.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28(1), 109-117. doi:10.1016/j.jad.2017.12.011
- Benazon, N. R., & Coyne, J. C. (2000). Living with a depressed spous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71-79. doi:10.1037/0893-3200.14.1.70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1-79. doi:10.1016/s0022-4405(96)00029-5
- Calmes, C. A., & Roberts, J. E. (2008). Rumin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oes co-rumination explain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distr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4), 577-590. doi:10.1007/s10608-008-9200-3
- Carter, J., & Garber, J. (2011). Predictors of the first onset of a major depressive episode and changes in depressive symptoms across adolescence: Stress and negative cogni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 779-796. doi: 10.1037/a0025441
- Chow, C. M., Homa, J., & Amersdorfer, A. (2017). Gender difference in sleep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8, 10-13. doi:10.1016/j.paid.2016.11.058

- Davila, J., Hammen, C., Burge, D., Paley, B., & Daley, S. E. (1995). Poor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s a mechanism of stress generation in depression among adolescent wo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4), 592-600. doi:10.1037//0021-843x.104.4.592
- Davila, J., Steinberg, S. J., Kachadourian, L., Cobb, R., & Fincham, F. (2004). Romantic involvement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a preoccupied relational style. *Personal Relationships*, 11, 161-178. doi:10.1111/j.1475-6811.2004.00076.x
- Flynn, M., & Rudolph, K. D. (2011). Stress generation and adolescent depression: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stress respons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8), 1187-1198. doi:10.1007/s10802-011-9527-1
- Frison, E., Bastin, M., Bijttebier, P., & Eggermont, S. (2018). Helpful or harmful? The different relationships between private Facebook interaction an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Media Psychology*, 22(2), 244-272. doi:10.1080/15213269.2018.1429933
- Hankin, B. L., Stone, L., & Wright, P. A. (2010). Co-rumination, interpersonal stress generat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Accumulating effects and transactional influences in a multiwave study of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6), 1016-1024. doi:10.1017/s0954579409990368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Joiner, T. E., & Timmons, K. E. (2009). Depression and its interpersonal context. In I. H. Gotlib, & C. L. Hammen (Eds.), *Handbook of depression* (2nd ed., pp. 298-321). New York: Guilford Press.
- Landoll, R. R., Schwart-Mette, R. A., Rose, A. J., & Prinstein, M. J. (2011). Girls' and boys' disclosure about problems as a predictor of changes in depressive symptoms over time. *Sex Roles*, 65, 410-420. doi:10.1007/s11199-011-0030-5
- Latina, D., Giannotta, F., & Rabaglietti, E. (2015). Do friends' co-rumination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prevent depressed adolescents from self-harm?

-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41, 120-128. doi:10.1016/j.appdev.2015.10.001
- Lewinsohn, P. M., & Essau, C. A. (2002). *Depression in adolescents*. New York: Guilford Press.
- Ma, H. K., Shek, D. T. L., Cheung, P. C., & Lee, R. Y. P. (1996). The relation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to personality and peer relationships of Hong Kong Chinese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7(3), 255-266. doi:10.1080/00221325.1996.9914863
- Murphy, B. C., & Eisenberg, N. (1996). Provoked by a peer: Children's anger-related respons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functioning. *Meriill-Palmer Quarterly*, 42(2), 103-124.
- Nolen-Hoeksema, S., & Hilt, L. M. (2009).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adolescence. In S. Nolen-Hoeksema, & L. M. Hilt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pp. 111-135). New York: Routledge.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doi:10.1177/014662167700100306
- Rose, A. J. (2002). Co-rumination in the friendships of girls and boys. *Child Development*, 73(6), 1830-1843. doi:10.1111/1467-8624.00509
- Rose, A. J., Carlson, W., & Waller, E. M. (2007). Prospective association of co-rumination with friendship and emotional adjustment: Considering the socioemotional trade-offs of co-rumin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3(4), 1019-1031. doi:10.1037/0012-1649.43.4.1019
- Schwartz-Mette, R. A., & Rose, A. J. (2012). Co-rumination mediates contagion of internalizing symptoms within youths' 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48(5), 1355-1365. doi:10.1037/a0027484
- Schwartz-Mette, R. A., & Smith, R. L. (2016). When does co-rumination facilitate depression contagion in adolescent friendships?: Investigation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 45(6), 1-13. doi:10.1080/15374416.2016.1197837
- Shankman, S. A., Lewinsohn, P. M., Klein, D. N., Small, J. W., Seeley, J. R., & Altman, S. E. (2009). Subthreshold conditions as precursors for full syndrome disorders: A 15-year longitudinal study of multiple diagnostic class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 1485-1494. doi:10.1111/j.1469-7610.2009.02117.x
- Shih, J. H., Eberhart, N. K., Hammen, C. L., & Brennan, P. A. (2006). Differential exposure and reactivity to interpersonal stress predict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1), 103-115. doi:10.1207/s15374424jccp3501_9
- Smith, R. L. (2015). Adolescents' emotional engagement in friends' problems and joys: Associations of empathetic distress and empathetic joy with friendship quality,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Adolescence*, 45, 103-111. doi:10.1016/j.adolescence.2015.08.020
- Spendelov, J. S., Siminds, L. M., & Avery, R. E.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co-rumin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A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4, 512-527. doi:10.1002/cpp.2023
- Starr, L. R., & Davila, J. (2009). Clarifying co-rumination: Association with internalizing symptoms and romantic involvement among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dolescence*, 32, 19-37. doi:10.1016/j.adolescence.2007.12.005
- Stone, L. B., & Gibb, B. E. (2015). Brief report: Preliminary evidence that co-rumination forsters adolescents' depression risk by increasing rumin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8, 1-4. doi:10.1016/j.adolescence.2014.10.008
- Thapar, A., Collishaw, S., Pine, D. S., & Thapar, A. K. (2012). Depression in adolescence.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9, 1056-1067. doi:10.4135/9781412950565.n128
- Tigchelaar, A., & Korthagen, F. (2004). Deepening the exchange of student teaching experiences: Implications for the pedagogy of teacher education of

recent insights into teacher behaviour.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0(7), 665-679. doi:10.1016/j.tate.2004.07.008

Vrshek-Schallhorn, S., Stroud, C. B., Mineka, S., Zinbarg, R., Adam, E. K., Redei, E. E., Hammen, C., & Craske, M. (2015). Additive genetic risk from five serotonin system polymorphisms interacts with interpersonal stress to predic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4(4), 776-790. doi:10.1037/abn0000098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stress between adolescents'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Choi, Yelin* · Lee, So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stress between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The subjects comprised 480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o-rumination Scale Questionnaire (CRQ), Interpersonal Stress Scale, an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s(CES-D) were used. We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means of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and graphical analysis and simple slope analysis were also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ly adolescents' peer stress exhibit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Second, in the case of male adolescents, peer stress and teacher stress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between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aking interpersonal stress into account whe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Key Words: adolescent, co-rumination, interpersonal stress, depressive symptoms

투고일: 2019. 3. 9, 심사일: 2019. 3. 21, 심사완료일: 2019. 4. 18

*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Institute of Child Studies